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이 효 영¹⁾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인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와 *F*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연령이 낮고 자녀양육 경험이 없으며, 학력이 높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부모-교사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보육교사,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 이 논문은 2013년 8월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석사학위 논문임.

1)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mhyukj@catholic.ac.kr)

I. 서 론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원활한 소통으로 쉽게 풀리기도 하는가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이처럼 관계 중심의 사회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중요한 사회적 생존 기술이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사 직무 능력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학부모, 가족, 동료, 지역사회 관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협력적인 관계 유지 차원에서 활동영역 및 기능, 목적에 따라 소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이은주, 2007).

이미자(2006)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은 교사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형식적으로 주고 받는 모든 대화이며, 기호를 통해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손환희(2009)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교사와 부모 상호 간에 매체를 이용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서로 공유된 의미를 수집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기능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라면 누구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김보들맘, 신혜영, 2000),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김현정(2000)의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 77.8%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김신영(1998)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 중 부모와의 관계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박향아와 제경숙(2003)에 의하면, 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부모의 지나친 요구,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부모의 요구 및 기대 간의 갈등과 같은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와 부모 간 관계의 어려움 해결에는 서로를 신뢰하는 의사소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은 상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 교사 자신의 내부적, 심적 갈등의 골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 간에는 건강한 대화가 필요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더 많은 의사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상호 이해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할 때 교사 및 부모는 개개 유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환희(2009)는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척도 사용을 통해 교사변인 중 연령이 낮을수록 어려움이 높고 학력에서는 교육원 졸업자가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대졸 보다

는 초대졸이 낮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변인 중에서는 사립보다는 공립에서 느끼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낮다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교사의 특성이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9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Harris(1988)의 연구에서는 나이든 교사가 젊은 교사들에 비하여 의사소통 시 발생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Wavering, Lavonne과 Kingsle(198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로 장미아(1996)는 20대 초반의 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어려움은 감소된다고 밝혔으며, 이진경(1995)은 젊은 교사일수록 현재의 교육풍토 등과 같은 면에 있어 다소 심각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는 초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즉, Isaac(1962)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이 느끼는 평균 의사소통 관련 문제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된다고 하였고, Feldens(1986)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부모와의 문제가 더 자

주 나타나고,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장미아(1996)는 경력이 1년 미만의 교사는 가장 적게, 1~3년 간에는 가장 높게, 3년 이상부터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점차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학력에 따라 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지만, 전인옥(1999)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사실회상 질문’,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적 질문’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능력의 질이 교사의 학력에 따라 다름을 보고하였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김보들맘과 신혜영(2000)의 연구에서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었으며, 최광희(2004)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모-교사의 협력관계 의미, 중요성, 장애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최미숙과 박영미(2004)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 보육교사의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교사의 심리적 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ndura(1977)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하는 이유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특정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판단을 말한다. 이것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나 교실관리, 대인간 기술과 부모와의 관계수준이 높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들(조은정, 1997; Ashton & Webb, 1986; Denham & Michael, 1981)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또한 구수진(2001)의 연구에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 그리고 가정과 기관의 협력관계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송송(2010)은 유아교사의 효능감 연구에서 교사의 '자기효능감'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교사의 변인중 급여, 경력, 학력이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특성에 따라 교사들이 받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하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김남희(1993)는 행정적 지지, 원아들과의 활동, 동료교사와의 관계, 경제적 안정, 업무과다로 구분하였고, 최재숙(1991)은 행정적 지지, 교사-학습활동, 동료교사와의 관계, 경제적 안정, 업무과다,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으로 보았다. 장미아(1996)는 원아들과의 활동 요인, 업무관련 요인, 행정적 지원 요인, 대인관련 요인, 경제적 안정 요인, 개인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요인, 생리적인 건강에 미치는 요인, 행동상의 요인, 조직에 미치는 요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안에서 보육교사들은 직접 대면이나 전화상, 또는 지면상으로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등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교사-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김은정(2009)은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효능감과 역할수행 간의 관계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형성과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홍경자(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교사가 부모와 의사소통할 때에도 교사의 전반적인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전 과정에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손환희(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에서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30%는 상위 30% 집단에 비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가 높다는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최근 발표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손환희, 정계숙, 2011)에서는 교사의 경력이나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구조적 변인과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기관에서의 교사의 의사소통은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 개인적 변인과 기관 특성 그리고 교사의 심리적 변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의사소통에 있어 인식의 차이 등을 살펴보는 데 머물러 있어 어린이집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 유형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즉 다양한 심리적 변인 및 능력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 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 및 관계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에 따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인 지역 어린이집 61개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 중에서 32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49부를 제외한 273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교사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14명(41.8%), 30대가 106명(38.8%), 40대 이상이 53명(19.4%)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경험으로는 경험 없는 교사가 181명(66.3%), 양육경험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273)

구분		빈도	%
교사 연령	20대	114	41.8
	30대	106	38.8
	40대 이상	53	19.4
자녀 양육 경험	없음	181	66.3
	있음	92	33.7
교사 경력	1년 미만	58	21.2
	1년~5년 미만	124	45.4
	5년~10년 미만	59	21.6
	10년 이상	32	11.7
교사 학력	고졸	39	14.3
	2, 3년제 대졸	89	32.6
	대졸 이상	145	53.1
기관 유형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123	45.1
	민간, 가정 어린이집	150	54.9

있는 교사가 92명(33.7%)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으로는 1년 미만이 58명(21.2%), 1년~5년 미만이 124명(45.4%), 5년~10년 미만이 59명(21.6%), 10년 이상이 32명(11.7%)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고졸이 39명(14.3%), 2, 3년제 대졸이 89명(32.6%), 4년제 대졸 이상이 145명(53.1%)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으로는 정부 지원시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이 123명(45.1%), 정부 미지원시설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150명(54.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교사의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Enoch와 Riggs(1990)에 의해 개발된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STEBI)를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수정하여 사용한 이분려(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12문항과 개인적 자기효능감 13문항으로 총 25문항이며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ienzo, Moracco와 Krajewski(1982)가 검증한 ‘교사 직무스트레

스 요인 질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보완한 임진형(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아들과의 활동 5개 문항, 업무관련 10개 문항, 행정적 지원 11개 문항, 대인관계 12개 문항에 대한 4개 하위 영역의 총 38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써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1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4점),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illard와 Bienvenu(1974)가 개발한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신두균(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척도는 자아개념(self-concept), 경청(listening), 표현의 명료성(clarity of expression), 감정처리(coping with angry feeling), 자기노출(self disclosure)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문항은 ‘다른 사람이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들로, 교사 자신이 평소에 상대하는 일반적인 모든 대인과 소통할 때의 주관적 생각을 대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총 40개의 문항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종종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관련 선행연구(구수진, 2001; 김낙범, 1993)를 토대로 손환희(2009)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척도는 교사용으로, 교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12문항,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 요인 5문항,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문항은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선생님의 교육관과 전문적인 직업의식 부족의 영향도 있다고 느끼니까?’라는 질문들로, 앞서 기술한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는 다르게 일반적 상대가 아닌 ‘부모’라는 특정한 상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며, 총 27문항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종종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

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ANOVA,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 시의 어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차이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교사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6.17, p < .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0대 이상($M = 2.11, SD = .40$)보다 20대 교사($M = 2.30, SD = .36$)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자녀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교사 간

표 2.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차이 ($N = 273$)

변 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F/t
	집단	n	$M(SD)$	
교사연령	20대	114	2.30(.36) ^b	$F 6.17^{**}$
	30대	106	2.17(.38) ^{ab}	
	40대 이상	53	2.11(.40) ^a	
자녀양육 경험	없음	181	2.27(.38)	$t 3.59^{**}$
	있음	92	2.10(.37)	
교사경력	1년 이하	58	2.25(.38)	$F .42$
	2~5년	124	2.22(.38)	
	6~9년	59	2.17(.35)	
	10년 이상	32	2.20(.46)	
교사학력	고졸	39	2.06(.39) ^a	$F 4.54^*$
	2, 3년제 대졸	89	2.20(.36) ^{ab}	
	대졸이상	145	2.26(.38) ^b	
기관유형	국공립, 법인	123	2.21(.38)	$t -.20$
	민간, 가정	150	2.21(.39)	

주. 영문자는 Scheffe' 검정결과임($a < b$)

* $p < .05$. ** $p < .01$.

의사소통시의 어려움은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교사($M = 2.27, SD = .38$)가 양육 경험이 있는 교사($M = 2.10, SD = .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3.59, p < .01$).

교사의 경력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4.54, p < .05$).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졸 이상($M = 2.26, SD = .38$)이 고졸($M = 2.06, SD = .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시의 어려움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의 교사($M = 2.21, SD = .38$)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M = 2.21, SD = .39$)의 평균이 같게 나타났다.

2.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의 관계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표 3.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관계 ($N = 273$)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기효능감	-.33**
직무스트레스	.47**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63**

** $p < .01$.

어려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모두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r = -.3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r = .47,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r = -.6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8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사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교사의 현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고,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소신이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2단계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개인이 갖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를 3단계로, 마지막 4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개인적 능력인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먼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설명력은 없었다. 2단계에서 자기효능감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8%로, 총 설명력은 16%로 나타났으며, 이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 = -.30, p < .001$)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5%로, 총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 = -.21, p < .001$), 직무스트레스($\beta = .41, p < .001$)로 나타났다. 마지막 4단계에서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9%로, 총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 이때, 자기효능감이 부

표 4.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녀양육 경험, 경력, 학력, 기관유형),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 = 273)

독립변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교사 연령	-.09	-.12	-.08	-.10	-.07	-.09	-.05	-.07
	자녀양육경험 ^a	-.13	-.16	-.13	-.16	-.10	-.12	-.08	-.10
	교사 경력	.02	.04	.03	.06	-.01	-.02	-.01	-.03
	교사 학력	.09	.12	.08	.11	.04	.05	.03	.03
	기관유형 ^b	.05	.13	.03	.08	.03	.08	.01	.03
자기효능감				-.37	-.30 ^{***}	-.26	-.21 ^{***}	-.06	-.05
직무스트레스						.28	.41 ^{***}	.19	.27 ^{***}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70	-.50 ^{***}
<i>F</i> 값		4.35		8.56 ^{***}		17.26 ^{***}		32.38 ^{***}	
<i>R</i> ²		.08		.16		.31		.50	
수정된 <i>R</i> ²		.06		.14		.30		.48	
<i>R</i> ² 변화량				.08		.15		.19	

주1. a: 가변수(무=0, 유=1)

주2. b: 가변수(국공·법인=0, 민간·가정=1)

*** $p < .001$.

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되었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직무스트레스($\beta = .27, p < .001$),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beta = -.50, 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사의 연령

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교사들이 부모와 가장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장미아(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연령이 낮은 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부모에 대한 교감능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연령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고 교감능력이 향상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양육 경험이 없는 교사가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환희(2009)의 연구에서 교사가 지각하는 ‘공감하기’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아무리 부모를 이해하려 해도 현재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진심어린 경청은 부모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결과는 자녀가 있는 기혼교사의 채용을 꺼려하는 현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영유아를 올바르게 보육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부모의 양육 기술에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기혼교사 채용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사녀, 2012; 손환희, 2009)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보육교사의 경력은 그냥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한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온 개인적인 소신이므로 그 소신이 교육 현장에서 값지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높은 교육 경력이 채용의 부담이란 벽으로 가로 막혀 있는 것이 현 교육 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양질의 보육 능력을 가진 경력자들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기영(2007)의 연구에서 대졸 이상의 교사가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대우를 받기 원하고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장의 실정상 학력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인한 사기저하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요인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연아와 김경은(2012)의 연구결과에서 학력이 낮은 교사보다 학력이 높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보육교사가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자부심 결여, 열악한 근무환경,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대졸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타 학과를 전공하여 보육관련 교과목만의 이수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졸업 후 타 직종에 종사하다 어린이집 교사로 이직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갖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육교사는 분명한 교육 전문직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를 바람직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현 보육교사 배출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신영, 1998; 손환희, 2009; 최현주, 2000)에서 국공립보다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가 어려움의 정도를 높게 지각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다양한 분야의 자질, 특히 영유아 상호작용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학부모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평가인증제도와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등으로 보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면서 어린이집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성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이라는 특정 행위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정 행동의 수행과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수준이 높으며, 대인간 의사소통 기술이 높다는 이순자(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구수진(2001)의 연구에서 교사의 효능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행동과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Denham과 Michael(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 그리고 가정과 기관의 협력관계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학부모와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이 교사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송연숙, 최애경, 2001), 특히, 의사소통 문제, 의견차이, 지적 발달 및 성취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와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부모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육을 요구하거나 유아지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것, 그리고 부모가 교사를 교육자로 대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학원 등과 동일시하는 것들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손환희, 정계

숙, 2011)에서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은 교사의 자아개념과 함께 경청, 표현의 명료성, 감정처리, 자기노출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므로, 결국 교사의 자아개념이 높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자기의사를 명료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처리를 잘하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강경란(2002)과 신두균(1988)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간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손환희(2009)의 연구에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직무스트레스가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 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아발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데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아들의 전인발달에 해를 끼치게 되는 물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에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서 나타나게 될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협력단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지어지기에 교사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 중 직무스트레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교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갖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정확히 인식한다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서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현장의 부모-교사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며 많은 분야에 긍정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보육 또한 점차적으로 공보육화 되어가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바람직한 보육은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교사의 노력과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상호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심리적 변인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공보육 현장의 주축이 되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은 교사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회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 환경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모든 보육교사들의 교직 관련 심리적 요인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겪는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와 척도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질적인 사례연구, 면접, 관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겪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아보았지만 연구대상을 교사와 부모로 함께 묶어 각자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상호간 균형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현직 교사는 물론 교사를 양성하는 모든 관련된 대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란 (2002). 교사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이 유아교사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교직 태도 및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수진 (2001). 유치원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2007).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낙범 (1993).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1993). 유치원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들맘, 신혜영 (2000).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6.
- 김사녀 (2012).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교

- 수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1998).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문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아, 김경은 (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김은정 (2009).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효능감과 역할수행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0). 공립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현장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아, 제경숙 (2003). 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한일비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2(3), 67-80.
- 손환희 (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환희, 정계숙 (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 송 송 (2010). 유아교사의 효능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숙, 최애경 (2001).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28(2), 97-110.
- 신두균 (1988). 교사 효율성 훈련(T.E.T)이 교사의 의사소통 수준향상 및 아동의 교사 지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 (2006). 교사-어머니 의사소통과 유아 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분려 (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7). 교사의 대인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일반*, 15(2), 109-138.
- 이진경 (1995). 교사 사기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교사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형 (2000). 유치원 초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아 (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 (1999). 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효능감이 언어적·비언어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9, 203-237.
- 조은정 (1997). 교사의 효능감과 교수행동 및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참여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광희 (2004). 부모-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의 부모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박영미 (2004).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인식. *열린유아교육*

- 연구, 9(2), 137-160.
- 최재숙 (1991). 유치원 원장의 지도성 유형에 따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2000). 유치원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2007). 의사소통의 심리학. 서울: 이너북스.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Clark, E. H.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Auburn, AL.
- D'Arienzo, R. V., Moracco, J. C., & Krajewski, R. J. (1982).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or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Denham, C. H., & Michael, J. J. (1981). Teacher sense of efficacy: A definition of the construct and model for future resear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1), 39-63.
- Enoch, L., & Riggs, I.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8.
- Feldens, M. F. (1986). Perceived problems of teachers. *The Brazilian Case Journal of Education of Teaching*, 12(3), 233-243.
- Harris, B. C. (1988). *An analysis of problems identified by teachers and selected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 Isaac, M. G. (1962) *A study of the professional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who were certified by the Chicago Board of Education in 1958, 1959, and 1960 to teach in the kindergarten-primary gra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Millard, J., & Bienvenu, S. R. (197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The 1974 annual handbook for group facilitators*. San Diego, CA: University Associates Publishers INC.
- Wavering, M. J., Lavonne, W. K., & Kingsele, W. G. (1988). Opinionnaire of teacher education: Technical report from teacher-principal improvement project. *Arkansas Educational Renewal Consortium*, 1355-1364.

1 차원고접수 :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3.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4.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on Difficulties with Parent-teacher Communication

Lee, Hyo Young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on, Hyuk 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lf-efficacy,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on difficulties with parent-teacher communication. The current study utilized *t*-tests, *F*-tests, cognitive relations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pproaches a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e data was gathered from a total of 273 participants, who are childcare teachers currently working in Gyeonggi-Incheon region nurseries. High self-efficacy levels and low job-related stress caused less difficulty with parent-teacher communication.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if a teacher possessed hig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ies, she or he had less parent-teacher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this variable had more impact than the other variables. Taken together, the findings from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self-efficacy,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 of a childcare teacher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difficulties with parent-teacher communication. The study also examined the situations where difficulties with parents-teacher communication were more likely to occur. Above all, through upgrading his or her hig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ies, a childcare teacher could be expected to resolve many difficulties at firsthand. Overall, the study offers consistent clues to resolve the issue across study measures, and provides findings that would suggest effective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ents-teacher relationships in nurseries.

Keywords: childcare teachers, self-efficacy, job stres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 difficulties with parent-teacher communication